

2017년 12월 19일, 애월읍 하귀2리 하귀2리노인회관, 강경민 조사.
변문호(남, 1933년생, 애월읍 하귀2리)

- 줄거리: 부잣집 머슴이 있었는데, 요구하는 대로 전부 해주는 것을 보고 주인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. 주인이 머슴에게 좋은 밭이 있는데 앞으로 옮겨 줬으면 좋겠다고 하였다. 머슴은 그 밭을 옮기려고 애를 쓰다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냥 가 버렸다.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머슴은 사람으로 환생한 여우였다.

[제보자] 부잣집이 종으로 사는데. 이게 허는 거 보민 착허기도 허고, 요구허는 건 다 헤다 주난 말이라. 겨울이라도 참외 먹켄 허믄 참외 사다 줄거. 멀워 먹켄 헤도 사다준다 말이야.

아, 이상허다 생각헌 거야. ‘이렇게 헐 수가 없는데, 이상허다.’ 허연.

주인이 이걸 알아봐야 허겔다 허연.

“나, 원 혼 가지 헐 게 잇는디 허지 못헿 아이 뉘키여.”

“뉘이우파?”

“저, 저쪽에 가면은 민뚝허게 좋은 밭이 잇는데, 난 그런 밭이 엇연. 그 밭을 으레 들러다 쫓이믄 내가 한이 엇이켜.”

이렇게 굴앗단 말이여. 굴으니까

“경 헤 뵙주.”

그래서 가가지고 네 귀에 지렐 땃 겔 만들어가지고 막 헛어. 두드리민 헤싸지곡, 두드리민 헤싸지곡 헤서. 도저히 못 허거든. 그러니까 올라가지고

“아이고, 나 잘못헤졌우다. 그냥 가쿠다.”

헨. 그게 그때는 옛날이엿던 모양인데. 그 사람이, 사람이 아니고 환생한 여우였다고 해. 그래서 기냥 떠났다고.

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을 허더라고. 그추룩 아니 헛이믄. 집이서 말 잘 듣는 체허당 완전히 집 망허곡. 옛날엔 경 헤났던 모양이라.

- 핵심어: 여우, 종, 머슴, 밭(밭), 환생, 겨울, 참외, 멀워(머루), 지레